

주나라, 임하리 기도편지 (제69호)

안녕하세요.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 하루입니다. 동역자 여러분은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나요? 코로나 전후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은 사소한 모든 것들이 소중한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 제한된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의 작은 기쁨, 작은 감사, 작은 사역을 동역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 송실대 유학생사역(ISF)은 비 대면 온라인으로 수업, 종강, 아웃팅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해 개강도 못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기대했지만 어렵다고 판단되어 비 대면 수업을 계획했고 가능한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지난 학기 교실 수업의 1/7인 10명가량의 학생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가능한 선생님들을 모아 기본적인 줌(zoom) 사용법을 오리엔테이션 한 후 비 대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소수지만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꾸준히 수업을 했고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모임

6월9일 줌을 통한 온라인 종강모임을 했습니다. 교사 10명과 유학생 1명이 참여했습니다. 예정에는 5명의 학생들이 들어오기로 했지만 학교 수업이 연장되어 모두 참여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학생만 참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임도 준비했지만 학생들이 없는 관계로 생략했습니다. 유학생은 비록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섬겨준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지도교수님은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격려사를 해 주셨는데 학생과 교사들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학생이 한 명 뿐 이어서 얼른 마무리하고 교사 모임을 갖으려 했는데 4명의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와우! 이 학생들도 모두 온라인 한국어 수업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교사회의

종강 모임을 마친 후 교사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한 교사들이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어서 시작할 때는 서툴고 어려웠지만 한 학기를 마칠 즈음에는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교실 수업은 주변 소음으로 방해가 되었는데 줌을 통해 일대일로 하니까 오히려 집중할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수업 효과가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은 줌 수업을 많이 힘들어 하셨던 연세 80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며 화상 수업을 이끄는 것이 그 분에게는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마치면서 좋았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는 시작조차도 어려웠는데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렇게 마무리를 하니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아웃팅

6월20일 아웃팅을 가졌습니다. 학생 23명과 교사 11명이 송실대에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각 반별로 찍었습니다. 날씨는 꽤 더웠지만 10개반 학생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찍었습니다. 어떤 반 선생님은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오셔서 기다리는 무더운 시간을 아이스크림을 먹는 재미로 채웠습니다.

캠퍼스 사진 촬영을 마친 후 학교에서 가까운 한강 노들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침 출출한 배를 달래 줄 김밥집이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문을 마친 후 모두 노랑진 방향의 한강을 바라보며 비 대면 김밥 먹기를 했습니다. 한강대교를 굽어쳐 잔잔하게 흐르는 한강물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김밥을 먹고 있었지만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착각을 갖게 했습니다. 잠깐이지만 모든 피로와 긴장을 떼내려 보내는 휴식의 공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여의도 방향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옆 줄 간격 2미터, 앞뒤 간격 1~2미터로 거리를 두고 앉아 일명 '비 대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체 사진이 꼭 차지 않아 허전했지만 그래도 한 학기를 함께한 이들과 찍은 사진이서 인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촬영 후 반별로 자유롭게 노들 섬을 구경하고 헤어졌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며

그리고 한 주 후 사진을 인화해 각 반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행복했던 순간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 1/7에 해당하는 소수의 학생들과 보낸 한 학기였지만 그 어느때보다 한 영혼의 귀중함을 느끼게 해 주었던 한 학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에서는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OMF 40주년을 감사하며 '선교행전'을 내다.

저희가 속해 있는 국제 OMF는 올해로 155년이 되고, 한국 OMF는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동아시아 안에서의 사역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 사역에 한국 선교사들도 동참하여 40년동안 함께 동역하게 하심을 더욱 찬양합니다!

40주년을 기념하며 그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했던 한국 선교사님들의 글을 모아 '선교행전'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었습니다. 이 안에는 저희의 글도 들어있습니다. 개개인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7월 4일

주안에서 동역자 된 주나라,임하리(민,국,은)드림

기도제목

감사

1. 한국 OMF 40주년을 잘 기념하며 선교행전 책이 출판된 것.
2. 민이의 발목 인대수술이 잘 회복되고, 국이도 한 학기 온라인 수업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것.
3. 교회와 후원자들의 신실한 재정 후원에 감사.

간구

1. 선교사 후보생들을 선발, 코칭하는 사역에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준비된 자들을 보내 주시도록.
2. 가을 학기 유학생 사역(ISF)에 선생님들과 유학생들을 계속 보내 주시도록.
3. 국제 OMF 리더십이 각 흠, 필드와 잘 소통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을 잘 대처하도록.
4. 임하리 선교사가 2021년 예산을 선교사들과 잘 소통하며 세울 수 있도록.
5. 민이 군복무 기간중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국이는 대학 마지막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며, 은이는 진로를 잘 찾도록.

- 노들 섬에서 바라 본 여의도 →

